

난 널 너무 사랑하기에...

- 윤평안(K2)

아쉽고도 진한 포옹을 끝으로

"누나도 엘에이를 떠나?" 냐고 묻는 네 질문이 쓸쓸하게 들렸다,
함께 예배 드린 후 학교 기숙사를 향해 걸어가는 네 등을 한참이나
바라보았다.

생전 처음 엄마 아빠와 떨어져

드디어 홀로 서는 관문에 선 널 위해

아빠는 애써 눈물을 참았다.

이 시간은 네가 단단해지는 시간이라 믿는다.

어쩌면 내가 단단해지는 시간일 지도 모르겠다.

널 보낸다는 건

내겐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시험무대라는 생각이 들었다.

널 신뢰해야 하고

주를 신뢰해야 한다.

어찌보면 너무 쉬워보이지만

내겐 그렇지 않다.

너의 세계를 이해하게 될 수록

네 고독이 내 것이 될 수록
네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록
너의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이 될 수록
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
믿음도 삼켜버릴
기세로 나를 엄습해온다.

그러나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난 너를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한다.

지난 18 년의 시간은 네가 세워지는 터였고
연단되는 장이었다 믿는다.
그 시간을 견디고 달려온 네가
네 인생에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또다른 언덕을,
두렵게 보이는 장벽을 마주하며
꼭 넘어야 하냐고 묻지만
또 멋지게 넘어가리라 믿는다.

무엇보다

너를 향한 나의 사랑보다 크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
그가 널, 보이지 않지만 전능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걸 신뢰한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

너를 위한 기도가 깊어지는 건

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
널 향한 나의 사랑이 신뢰보다 크기 때문인지 모르겠다,
그게 사실인지 어떤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
하늘 아버지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다,

너를 신뢰하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,
어쩌면 너무 쉬워 보이는
그것도 힘겹게 해내는 아빠의 작은 믿음도
하찮게 여기지 않으실 하늘 아버지가 분명하다,

아들이 넘어야 할 갈보리 언덕의 높이와
깊어져야 했던 십자가의 무게를
이미 경험하셨던 아버지는
아빠를 이해하실 거다,

난 널 너무 사랑하기에 너를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한다,

눈 감고 널 생각하면
그건 이내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된다,